

우리나라 작업치료사 인력양성 실태 및 문제점

이 미 자

삼육재활병원 재활치료팀

Abstract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Educating Occupational Therapists in Korea

Lee, Mi-Ja, M.P.A., O.T.

Dept. Rehabilitation Therapy, Sam Yook Rehabilitation Hospital

Though it has passed over 50 years since occupational therapy was introduced into Korea, the Korean occupational therapy is still in the beginning stage. This researcher investigated the reality of educating students and the problems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therapy. The quality of manpower is determined by how we can secure specialties in the process of educating students, and it is highly related with the standards of service. Therefore, the efforts to acknowledge the present situation of supply and demand for educating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should be made cautiously. To assure the quality of occupational therapists and make the better circumstances for them and predict the promising future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therapy, the basic regulations and minimum standards fo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actice institutions must be established immediately.

Key Words : Occupational therapist

I. 서 론

우리 나라에 작업치료가 도입된 이래 50년이란 짧은 세월이 흘렀으나 우리 나라의 작업치료 분야는 걸음마 단계를 막 넘어서 수준에 있다.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그 동안 작업치료 분야는 내적, 외적조건이 양과 질 모두에서 충분하지 않았으나 최근 2,3년 사이에 갑자기 많은 대학에서 작업치료학과를 무분별하게 신설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바래왔던 작업치료사 양성의 정규교육과

정의 설치와 더불어 인력양성의 양적인 면에서는 해결이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작업치료학과에 요구되는 자질을 가진 교수요원의 확보나 실습시설, 교과과정의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신설된 교육기관의 난립은 작업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향후 작업치료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체계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우리 나라 작업치료의 현황을 중심으로 작업치료사의 인력양성 실태 및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역 사

우리 나라에 전문적인 작업치료가 소개된 것은 6.25이후이다. 동란 중인 1952년 부산 동래에 전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정양원'이 1953년 한국 재활의학의 발상지가 된 구 '국립재활원'으로 변경되었다. 이곳의 의무과장을 지낸 오정희는 New York University Medical Center의 재활의학 연구소에서 재활의학 분야를 수료하고 돌아와 우리 나라 재활의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우리 나라 여성으로 미국에 건너가 한국인 최초로 미국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했던 Esther Park이 한미재단 직원으로 60년대 초 고국에 돌아와 국립재활원에서 오정희와 함께 작업치료사 양성교육의 서막을 열었다. 오정희와 Esther Park은 최귀자에게 작업치료를 교육시켜 1969년 우리 나라 최초의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또 50년대를 전후해서 선교사로 파견되어 의료봉사를 하던 외국인 작업치료사가 일부병원에 작업치료실을 개설하였고 작업치료사 양성교육을 하였으며, 70년대 초까지 외국인 작업치료사가 교육을 담당하여 수습기관을 통한 소수의 작업치료사가 양성되었다.

정규교육기관이 생기기 전 작업치료사의 양성의 주를 이루었던 의료기사 등의 수습제도는 의료기사법 제정 당시(1973년 2월 16일) 정규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해당학과가 생기기 이전에 의료보조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사 수습기관을 활용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제도였다. 수습제도는 의료기사법 시행령11조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수습기관에서 일정기간(고졸 3년, 초급대학 또는 대학졸업자 1년)동안 수습을 받은 사람에게 작업치료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양성이 이루어졌는데 이때의 수습생들은 대부분 물리치료를 전공한 물리치료사들이었다.

이렇게 비정규교육과정인 수습을 통하여 작업치료사가 배출되어 오다가 1979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보건학과(보건학과 내에서 재활의학기술학전공, 81년 재활학과로 분리, 91년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전공 분리)가 신설되면서 비로소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에 의한 작업치료사 양성이 시작되었다. 1983년 이 학교 졸업생 2명이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작업치료사가 처음 배출되었고 수습제도는 1997년 국가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작업치료사의 인력양성은 1982년까지는 수습제도를 통하여, 1983년부터 1997년까지는 수습제도와 정규교육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1998년부터는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2. 인력양성 실태

1) 교육기관 실태

1997년까지 주로 재활의학과가 있는 종합병원급의 8개의 수습기관을 통하여 작업치료사가 양성되어 오다가 1997년 수습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는 작업치료학과가 개설된 대학의 졸업생 배출인력만으로도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규교육과정은 지난 20여년 동안 연세대학교 한 곳뿐이었으나 1998년 광양대학을 시점으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9년 동남보건대학교 경북대학이, 2000년에 인제대학교 등 4년제 3개교, 3년제 2개교가 개설되었고, 그 후 계속적으로 늘어나 2002년 7월 현재 대학에 작업치료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모두 24개교(4년제 7개교, 3년제 17개교)로 입학정원은 925명이다(표 1).

대학원과정은 2개교에 개설되어 있는데 연세대

학교의 경우 석사과정은 1993년, 박사과정은 1997년에 개설되었고, 대구대학교는 2000년에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2002년 8월에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2) 배출 실태

우리 나라 작업치료사의 배출은 국가시험을 통해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면서 이루어졌다. 1963년 의료기사 국가고시법의 제정으로 1965년 제 1회 작업치료사 면허 국가시험이 실시되어 3명이

표 1. 작업치료학과 개설 학교현황

학 교 명	개설연도	졸업연도	입학정원	학 제	소 재 지
연세대학교	1979	1983	40	4년제	강원 원주
광양보건대학	1998	2001	80	3년제	전남 광양
동남보건대학	1999	2002	80	3년제	경기 수원
경북대학	1999	2002	80	3년제	경기 포천
건양대학교	2000	2004	25	4년제	충남 논산
대구보건대학	2000	2003	40	3년제	대구광역시
인제대학교	2000	2004	30	4년제	경남 김해
제주한라대학	2000	2003	40	3년제	제주도
한서대학교	2000	2004	30	4년제	충남 서산
우송대학교	2001	2005	40	4년제	대전광역시
대전보건대학	2001	2004	40	3년제	대전광역시
경북과학대학	2001	2004	40	3년제	경북 칠곡
가야대학교	2002	2006	30	4년제	경북 고령
대불대학교	2002	2006	30	4년제	전남 영암
주성대학	2002	2005	30	3년제	충북 청원
군장대학	2002	2005	30	3년제	전북 군산
성화대학	2002	2005	30	3년제	전남 강진
순천제일대학	2002	2005	30	3년제	전남 순천
여수공업대학	2002	2005	30	3년제	전남 여수
전남과학대학	2002	2005	30	3년제	전남 곡성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2002	2005	30	3년제	경북 경산
포항1대학	2002	2005	30	3년제	경북 포항
서라벌대학	2002	2005	30	3년제	경북 경주
성덕대학	2002	2005	30	3년제	경북 영천

자료제공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2002

응시했으나 모두 불합격되었고, 1969년 제2회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서 한 명이 합격함으로써 배출되기 시작하여 2002년까지 29회째 시행되었다(표 2).

2002년 7월 현재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작업치료사는 수습기관을 통해 179명, 연세대

를 포함한 4개의 정규대학과정을 통해 417명이 배출되어 총 596명이다(표 3).

3) 취업 실태

2002년 7월 현재 면허를 취득한 총 596명에 대해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 등록된 회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활동 중인 작업치료사는 미취업자 189명(등록이 안 된 회원은 미취업자로 분류)과 해외이주자 22명을 제외한 385명이다.

이들의 근무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작업치료실이 개설되어 있는 의료관련기관이나 복지관 등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의료기관이 22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업치료와 관련된 타 직종 종사자의 경우 물리치료사로 28명이나 근무하고 있다. 학교에도 교수요원으로 37명(물리치료과 교수 포함)이 후진 양성에 참여하고 있다(표 4).

III. 문제점

1. 인력수급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몇 년 사이 갑자기 작업치료 교육기관이 늘어나 지난 2000년까지만 해도 한해 20명 내외가 면허를 취득했으나, 광양대학 졸업생이 배출된 2002년은 거의 3배가 되는 64명, 2002년에는 경북대학교 동남보건대학이 합세하여 117명이 면허를 취득하였다.

이 숫자는 대학의 입학정원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있는 24개교의 졸업생이 모두 나오는 2006년에는 925명이 졸업하게 된다.

물론 그해의 국가시험 합격률에 따라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불과 몇 년 안에 작업치료사 면허취득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자명한 일이다. 다행히 올해까지는 그 동안 적체되었던 작업치료사 채

표 2. 연도별 국가시험 실시현황 (단위 : 명)

시험 횟수	연도	응시자 수	합격자수 수습 대학	합격률 (%)	합격자 누계
1	1965	3	0 0	0	0
2	1969	1	1 0	100	1
3	1974	3	3 0	100	4
4	1976	1	1 0	100	5
5	1977	1	1 0	100	6
6	1978	2	2 0	100	8
7	1979	1	1 0	100	9
8	1980	5	5 0	100	14
9	1982	3	3 0	100	17
10	1983	9	7 2	100	26
11	1984	11	4 6	90.9	36
12	1985	10	5 5	100	46
13	1986	18	7 5	66.6	58
14	1987	24	15 8	95.8	81
15	1988	25	8 12	80.8	101
16	1989	23	11 10	91.3	122
17	1990	18	12 6	100	140
18	1991	39	16 23	100	179
19	1992	35	12 23	100	214
20	1993	32	15 16	96.9	245
21	1994	21	13 8	100	266
22	1995	25	9 14	92	289
23	1996	33	15 15	90.9	319
24	1997	29	13 15	96.5	347
25	1998	27	0 25	92.6	372
26	1999	26	0 25	96.2	397
27	2000	22	0 25	92.6	422
28	2001	83	0 65	78.3	487
29	2002	177	0 117	66.1	604

자료제공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02

표 3. 교육기관별 면허취득현황

(단위 : 명)

연도	수습	대학	계	비고(출신 교육기관)
1969~1982	17	0	17	8개의 수습기관
1983~1997	162	168	330	8개의 수습기관, 연세대학교
1998~2000	0	68	68	연세대학교
2001	0	64	64	연세대학교, 광양대학
2002	0	117	117	연세대학교, 광양대학, 경북대학, 동남보건대학
계	179	417	596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2002

표 4. 면허취득자의 취업 및 진로현황

(단위 : 명)

근무기관 현황	인원	비율	비고
의료기관	226	37.9	대학병원: 93, 종합병원·병원: 122, 의원: 11
복지관	57	9.6	
재활관련기관	11	1.9	
기타기관	21	3.5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6, 치료감호소 : 2 포함
재활관련타직종	33	5.5	물리치료사 : 28, 언어치료사 : 3, 의지·보조기기사 : 2
학교(교수요원)	37	6.2	물리치료과 : 19, 작업치료과 : 18
해외	22	3.7	
미취업	189	31.7	

자료제공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2002

용이 많은 기관에서 이루어져 예상했던 취업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향후 공급과잉으로 인한 심각한 취업난이 예상된다.

2. 제도적 문제점

제도적인 면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작업치료 교육기관에 대한 설치 기준이나 규정이 전혀 없이 많은 수의 작업치료학과 개설을 희망하는 학교에게 인가를 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결과 무분별한 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하여 작업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수요공급에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작업치료 의료보험수가문제나 작업치료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확대 등에 있어 정부의 제

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금년 정책현안으로 정한 1)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의 작업치료사 채용근거 마련, 2)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요원 배치기준에 작업치료사 포함, 3) 비 작업치료인의 작업치료행위 금지, 3)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작업치료사 배치기준 근거 마련 등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란다.

3. 교육의 문제점

교육에 있어서는 체계화된 교육과정의 부재와 전문교수의 부족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이다. 이는 작업치료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 반드시 표준화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

표 5. 작업치료실 개설기관

구 분	대학병원	종합병원	의 원	복지관	기타기관	계
기관수	41	44	5	23	13	126

자료제공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2002

한의 필요한 전공이수 학점, 임상실습시간 등은 WFOT의 기준을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추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작업치료사는 교과과정 중 임상실습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학생 수에 비해 충분한 임상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가진 실습기관과 지도요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실습교육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작업치료사는 다른 어떤 학문분야보다 전문적이고 특수한 기술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작업치료 교육을 위하여 현재 2곳밖에 없는 대학원과정의 증설과 전공교과서적의 개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4. 작업치료 영역의 문제점

근래 소수의 치료사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의 여태까지와는 성격이 다른 기관에 취업한 것을 제외하고, 현재 작업치료사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대부분 의료기관이나 복지관 및 재활기관에 집중되고 있는 형편이다(표 5).

이는 작업치료인력의 진출분야 및 실무영역이 선진국에 비해 협소하고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작업치료사들이 공급의 과잉으로 면허취득 후에도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작업치료인력이 새롭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의 개발이 필요하다.

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작업치료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이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인력의 질(Quality)로 결정되고 곧 서비스의 수준으로 연결된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급속한 교육기관의 증대로 인하여 작업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인력수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 작업치료 분야에 있어 인력양성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대한 파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이를 분석하여 장래를 예측하고, 작업치료사 인력의 질적 향상과 활동하고 있는 분야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의 기반과 기준이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이미자. 한국작업치료의 현황과 대안.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998;6:93-10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2001.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시원연보. 2001.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가시험개선방안연구팀. 현행국가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연구. 1998.

IV. 결 론

작업치료가 필요한 곳에 양질의 작업치료서비스